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5년후 광주 U대회 땐 우리가 주역 될거예요"

4일 광주시 서구 센트럴호텔 정문 앞길에 세워진 하계U대회 실사단 버스 앞에서 체육 유망주 6명이 '하계U대회 광주 개최'를 염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명·이창선·박현우·노황훈 군·김한비·김한솔 양.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찬명·박현우·이창선·노광훈·김한비·김한솔

광주지역 중학교 2년 '스포츠 꿈나무'들의 소망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돼 우리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싶어요."

'국제 대학스포츠연맹'(FISU) 주관으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하계 U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되길 간절히 바라는 체육꿈나무들이 있다. 광주 체육중 2년 레슬링 선수인 박찬명(14)·박현우(15)군과 상무중 2년 태권도부 학생들인 이창선(14)·노광훈(14)군·김한비(14)·김한솔(14)양 등 6명이 그들이다.

5년 후 대학생이 될 이들은 하계 U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될 경우 국가를 대표해 U대회를 이끌 주역들이다. 현재 이들은 전국소년체전을 비롯한 대통령기 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지역의 유망주들이다. 국가대표선수와 체육교사, 지도자 등이 장래희망인 이들은 하루 평균 4~8시간 가량 소속 학교에서 훈련하면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아직 여드름이 듬성듬성 나있는 앳된 얼굴의 중학생이지만 이들의 각오만큼은 국가대표 선수 못지 않다. 이들은 장래 광주 U대회에 참가, 문화수도 광주와 태권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의 대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또 광주의 우수한 체육시설에서 외국 선수들과 겨뤄 결코 뒤지지 않는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싶다고 했다.

'FISU' 실사단이 하계U대회 후보도시 실사를 위해 광주시를 방문 중인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은 4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센트럴호텔에서 만난 실사단에게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U대회가 광주에서 꼭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전했다.

박현우 군은 "현재 인도에서 레슬링을 배우러 온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레슬링 강국으로 꼽힌다"며 "대학생이 되어 광주에서 열리는 U대회에 참가해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의 기량을 외국 선수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비 양은 "광주에서 하계U대회가 개최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안방에서 외국 선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창선 군은 "국내에선 소년체전(중학생의 경우)이 가장 큰 대회인데, 이보다 훨씬 더 큰 하계U대회에 참가하는 게 꿈"이라며 "문화·인권·평화도시인 광주의 정신과 다양한 먹을거리를 전 세계 선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건 3인방에 큰 코 다친 '호랑이'

KIA 올 시즌 20패 중 류현진·김광현·장원삼에 무려 5패 당해

'신예 에이스 3인방을 넘어라'

KIA타이거즈는 지난 1일 두산에 2연속 역전패로 8개 구단 중 가장 먼저 20패를 기록하는 수모를 당했다. KIA가 기록한 20패중 5패는 차세대 에이스 류현진(한화), 김광현(SK), 장원삼(우리)에게 당한 것이어서 전세를 만회하려면 이들을 넘어서야 한다.

KIA 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투수 중 한 명은 한화의 류현진. 시즌 5승1패로 승승장구 하고 있는 류현진은 KIA에게만 올해 2승을 뽑아내며, KIA전 7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올시즌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2.52지만 KIA에게는 1.06까지 내려간다.

지난 해에도 KIA는 류현진과 5번의 대결에서 4패를 헌납했다. 류현진의 대 KIA 평균 자책점은 2.38. 삼진은 24개나 뽑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IA타자들은 류현진만 보면 주눅이 든다. 지난 달 4일 시즌 첫 대결에서 류현진은 초반에 제구가 잡히지 않아 급격히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조급한 타자들은 성급하게 방망이를 휘두르다 1회 선두타자 이용규의 볼넷을 제외하고 6회까지 삼자범퇴로 물러났다. KIA는 결국 1-4로 패했다.

① 한화 류현진에 7연패

② SK 김광현에 삼진 10개

③ 우리 장원삼에 완봉패

지난해 KIA를 상대로 3.92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을 챙겼던 SK의 김광현은 올시즌 더 매서워졌다. 1.52의 평균자책점으로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김광현의 KIA전 평균자책점은 1.38이다. KIA전 2경기에 나와 모두 승리투수가 된 김광현은 지난달 26일 경기에서는 2개의 안타만 허용하며 10개의 삼진을 뽑아내는 기염을 토했다.

장원삼도 자신의 프로야구 첫 완투를 KIA전에서 기록했다. 지난달 23일 10개의 삼진을 빼앗으며 9이닝동안 4안타만 맞은 장원삼은 2005년이후 3년 만에 프로야구 무4사구 완봉승의 주인공이 됐다. 장원삼은 지난해에도 4경기에 나와 1승을 챙기며 2.38의 방어율을 올렸다. 탈삼진도 18개나 됐었다.

'영건' 3인방은 투수 순위 상위권에 올라 있는 에이스들이다. 하지만 KIA타선은 유난히도 이들 3인방 앞에서 주눅이 든다.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KIA 타자들의 한 번 더 생각하는 타격, 자신감 있는 스윙이 절실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장성호 너마저…

포수 김상훈 이어 또 부상…탈꼴찌 비상

'안방마님' 김상훈에 이어 중심타자 장성호마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KIA타이거즈의 '탈꼴찌'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4회 도루를 하다 왼쪽 늑골을 다쳤던 장성호는 2군으로 내려가 재활훈련을 받고 있다. 복귀에는 2주가량이 걸릴 전망이어서 갈 길 먼 KIA의 발걸음은 더 느려지게 생겼다.

최희섭, 이현곤의 부진 속에서도 장성호는 0.358의 타율과 2홈런, 팀내 최다 타점(15점)으로 묵묵히 중심 타자의 역할을 해왔다. 등쪽 통증으로 전지훈련부터 고생했던 장성호는 지난달 16일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도 왼손목을 다치며 잠실구장에서 두 번이나 '부상병'이 됐다. 주사까지 맞으며 경기에 나섰던 장성호는 결국 1주일 동안 결장했다.

인대파열로 재활중인 김상훈도 5월 말에나 복귀가 가능해 KIA는 공·수의 핵이 빠진 상황에서 힘겹게 경기를 풀어나가게 생겼다.

KIA는 지난해 부상병동으로 전락하면서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부상과의 싸움까지 겹치면서 '5월 대반격'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KIA 경기 4회초 2사 1루에서 KIA 장성호가 도루를 시도하다 부상을 당했다.

앤서니 김 "PGA 첫 승 보인다"

13언더 선두…2위와 4타차

와코비아챔피언십 3R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와코비아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단독 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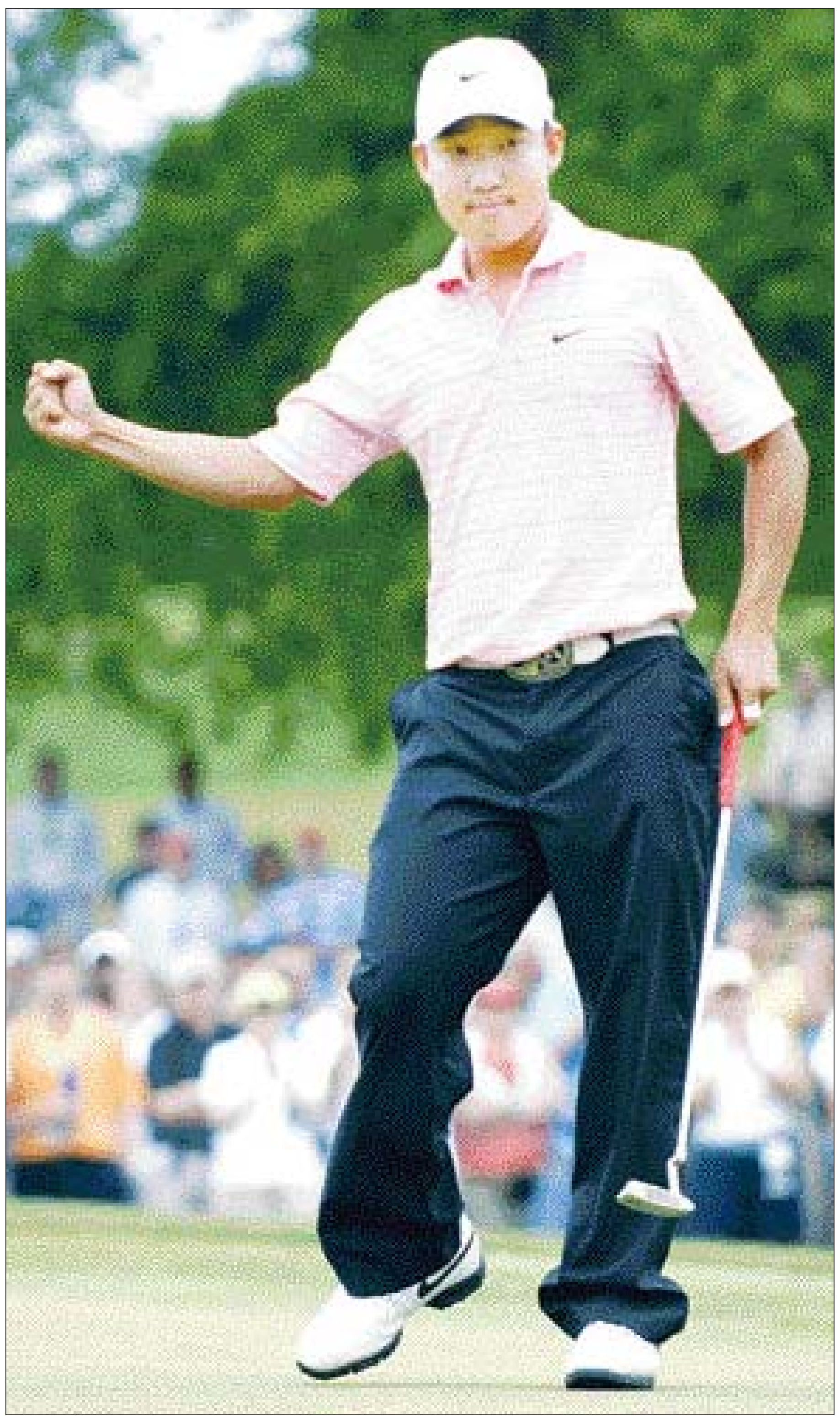
앤서니 김은 4일(한국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퀘일할로골프장(파72·7천442야드)에서 열린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뽑아내는 깔끔한 플레이로 13언더파 203타가 됐다.

공동 2위인 제이슨 본, 히스 슬로컴(이상 미국)과는 4타 차이로 데뷔 후 첫 우승을 눈앞에 뒀다. 2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본에 2타 뒤진 채 출발한 앤서니 김은 9번 홀(파4) 약 3m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본을 추월했다. 1번 홀(파4)부터 버디로 상쾌하게 출발한 앤서니 김은 전반 9홀에서 버디를 4개나 보태 쾌조의 샷 감각을 자랑했다. 14번 홀(파4)에서 버디 1개를 보탠 앤서니 김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도 두 번째 샷을 홀 1m 거리에 갖다 붙이며 3라운드 마무리를 버디로 장식했다.

1985년 6월1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앤서니 김은 오클라호마대 신입생 때인 2004년에 미국대학스포츠(N-CAA) 올해의 신인상을 받았으며 2006년 프로로 전향해 2007년 PGA 투어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선수로 활약했다. 김하진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앤서니 김은 2006년 텍사스오픈과 올해 4월 버라이즌헤리티지 준우승이 PGA 투어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이번 첫 승에 도전하게 됐다.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은 4오버파 76타를 쳐 중간합계 2오버파 218타, 공동 58위에 올랐으나 3오버파 75타를 기록한 나상욱(24·코브라골프)은 4오버파 220타가 돼 4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짐 퓨릭(미국)이 7언더파로 공동 6위, 비제이 싱(피지)은 6언더파로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다. 필 미켈슨(미국)은 3타를 줄여 5언더파가 돼 공동 11위에 자리 잡았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이 4일 노스 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벌어진 와코비아 챔피언십 골프 토너먼트 3라운드 18번 홀에서 버디 퍼트 성공 후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오지영·이지영·장정 공동 6위

LPGA 셈그룹챔피언십 3R

폴라 크리머(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셈그룹챔피언십 3라운드에도 단독 선두를 지켰다.

2라운드부터 1위로 올라선 크리머는 4일 오클라호마주 털사 시더리지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3일째 경기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타를 줄여 3언더파 210타가 됐다.

5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버디와 보기를 똑같이 3개씩 기록하며 제자리 걸음을 해 5오버파 218타로 공동 6위에 머물렀다.

한국 선수들 가운데서는 오지영(20·에머슨퍼시픽)과 이지영(23·하이마트), 장정(28·기업은행)이 5오버파 218타로 공동 6위에 자리 잡았다. 1라운드 1위였던 박희영(21·이수건설)은 버디는 1개에 그친 반면 보기 8개, 더블보기 1개를 쏟아내는 난조 끝에 9타를 잃어 11오버파 224타로 공동 40위로 내려앉았다.